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1년 11월 14일
제186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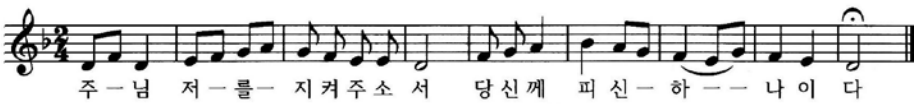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 무 실: 703 968 3010　　팩　　스: 703 968 3013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마르 14,7〉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나해)

제 1 독 서 **다니 12,1-3** | 그 때에 네 백성은 구원을 받으리라.

화 답 송 **시편 16(15)**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2 독 서 **히브 10,11-14.18** |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복　　음 **마르 13,24-32** |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한다.

✝복음 묵상

갑작스러운 지인의 비보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하고 싶고 이룰 것이 더 많은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건강을 돌보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몸에서 이상한 징후와 조짐이 보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이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겨 버릴 때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많은 경우 그런 징후와 징조를 흘려버리는 이유는 자신의 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느라 그 징조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후와 징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예수님의 가치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를 발견하더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사건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준비하시고자 말씀하신 그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음식이 버려질 때, 배고픔으로 죽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전등을 켤 때, 지구 반대편은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때,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잃지 않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훈 토마스 신부)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마르 14,7).
파스카가 있기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마르 14,6).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난한 이를 대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형성된 이 강한 '공감' 과, 유다와 다른 이들이 느낀 불쾌함과는 반대되는 그 여자의 도유에 대한 예수님만의 해석은 예수님과 가난한 이들과 복음 선포 사이의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 고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얼굴은 가난한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 곁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진정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들은 복음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며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마태 5,3 참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운명을 함께 나누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마르 14,7). 이 말씀은 선행의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을 떠올려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항구와 같습니다. 항구는 그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이 그 누구든 상관없이 쉬게 해 주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난이라는 난파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판단하지도, 그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고 불행에서 그를 구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손쉽게 얻은 결실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엇이라도 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공포와 불안, 경우에 따라 폭력까지 불러오는 온갖 방식으로 분노하고 느닷없이 신경질 부리며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들 자체도 가난의 여러 형태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809〉

본당 행사

교리경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승격 25주년과 성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천주교 교리문답 경시대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전 골든벨 수상은 없으나 이호영 바오로 형제가 LA왕복 항공권을 부상으로 받으셨습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축하합니다!

- ① **단체전 우승 :** 센터빌 구역
- ② **단체 준우승 :** 비엔나 구역
- ③ **단체 공동 3위 :** 버크, 스프링필드 구역
- ① **개인전 우승 :** 이호영 바오로

※교리경시대회 관련 사진은 본당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tpaulchung.org/content/photo?galleryId=40)

1 단체장 회의

- 일시: 11월 14일(일) 오전 11:40 (B-3,4)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1월 14일(일) 오후 1시 (B-3,4)

3 복사단 회의

- 일시 : 11월 14일(일) 오후 3시(B-1,2)

4 CYO WorkCamp

CYO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 WorkCamp에 관한 미팅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1월 14일(일) 오후 4시 (친교실)
- 문의: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5 청년 성서모임 만남의 잔치

- 일시 : 11월 20일(토) 오후 4시(체육관)
- 주제 : "에파타"(열려라)
- 찬양, 기도, 나눔이 있는 청년성서모임 만남의 잔치에 본당 청년들과 성서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조다은 아네스 (703) 965-2988
- 신청 : bit.ly/be_open2021

6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B-3,4)

7 안나회 월례회의 및 특별 강의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 주제 : 심근경색이란 무엇인가?
- 강사 : Dr. 박찬종(토마스) 심장내과 전문의

8 K o C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1(일) 오전 11:30(B-1)

9 요한회 2021년 총회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B-2)

10 ME 2021년 총회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하상관 #110)

11 추계 대청소

단체부 주관 추계 대청소가 **11월 28일(일) 10시 미사 후**에 실시됩니다. 성당 주변 청소 및 낙엽 제거를 할 예정이니 모든 단체부 임원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1년 세례성사

- 일시 : 12월 5일(일) 10시 미사 중
- 세례자 종합교리 : 12월 4일(토) 오후 7:30, 친교실
  대부, 대모님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탄 판공성사 안내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 본당 판공성사 : 12월 7일(화) 오후 3시, 오후 7:30
- 외부에서 신부님을 초빙하여 성사를 드립니다.

14 2차 헌금 - 성직자 은퇴기금

- 이번 주일은 성직자 은퇴기금(Retirement Fund for Religiou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 교회유지비(교무금) 안내

교무금은 교회를 유지하며 복음선포를 위해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교무금 납부에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16 2022년도 매일미사책 신청 및 병초(Box)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미사책 1권 : $ 7 / 1년 : $75
  대자 1권 : $14 / 1년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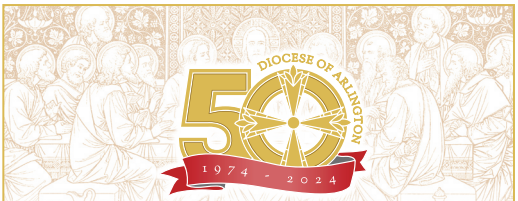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대림특강

대림특강 1

- **12월 5일(일) 오후 1시-3시, 친교실**
-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뉴욕 평화방송 미주지사 사장)
- **주제 : "하느님의 사랑"**

대림특강 2

- **12월 12일(일) 오후 1시-3시, 친교실**
-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님**(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 **주제 :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Year Two (2022년 11.20 시작)

"Rejoice" : 활력이 넘치는 교구의 현재 모습에 기뻐합니다.

Year Three (2023년 11.26 시작)

"Renew" : 앞으로의 우리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더욱 굳건히 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lieehome/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1월 7일(연중 제32주일)

주일헌금	$ 7,808.00
교무금	$ 16,380.00
교무금(신용카드)	$ 4,49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3,280.00
온라인 봉헌	$ 3,150.00
모든 성인의날 헌금	$ 1,763.00
합계	**$ 36,87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매일 **오전 8시, 오후 12시, 6시 뉴스 시작 1분 전**에 **김태진 신부님의 1분 묵상**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11월 17일(수) 오전 6:15-6:45
11월 2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주일미사 강론**
- **CBCK 미디어교리 -"연옥과 죽은이를 위한 기도"**
- **본당 공지사항**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1월 18일(목) 오후 5:00-6:00
11월 19일(금) 저녁 8:00-9:00
11월 21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미사 강론**
2. **특강 : 김대우 모세 신부**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12) -
   "인연은 봄바람처럼"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 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